

6장 : 표현적인 선

◆1교시 : 표현적인 선과 고딕예술의 상관관계

▲표현적인 선과 고딕예술의 상관관계

기하학적인 추상은 유기적인 것과 대립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추상에서도 기하학적 추상과 표현적 추상으로 갈리고, 기하학적 선은 결국 유기적인 선들, 그리스적인 예술과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구상과 추상은 대립될 수 없다고 들뢰즈/가타리가 말합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입체나 공간성에 종속되어 있는 그리스의 유기적인 선은 입체나 공간성을 평면으로 환원시키는 이집트의 기하학적 선을 계승한 것이다] 좀 전에 읽었죠. 그 다음.

[대칭성, 윤곽, 안과 밖을 지닌 유기적인 것은 여전히 홈이 패인 공간의 직선적 좌표계와 결합된다. 직선적, 또는 단선적 체계는 하나의 공간이 홈이 파이고 선이 윤곽을 구성하기 위한 형식적 조건들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얘기죠. 기하학적인 선, 면들은 홈이 파이고 선이 윤곽을 구성하기 위한 형식적 조건들을 제시한다. 여기서 홈이 팬다는 건 규정되는 거죠. 이 선은 어떤 선이고 이 작품에서 볼 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 하는 구상적인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기하학적인 점, 선, 면이 3차원의 입체로 연결되면, 그것이 자연계의 본질적인 형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적 추상과 재현의 세계, 유기적인 선과 구상적인 예술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은 설령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형식적이고 재현적이다] 결국, 기하학적인 기본 틀이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현의 바탕이 되죠. 기하학적인 면으로 환원된다는 게 그런 말이죠. 재현하지 않더라도 재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재현의 세계, 자연 모방의 세계, 예술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게 기하학적인 추상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선, 어떠한 윤곽도 그리지 않는 선,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점과 점 사이를 지나가는 선, 수평선과 수직선으로부터 비껴나오며 부단히 방향을 바꾸는 선, 바깥도 안도, 형태도 배경도, 시작도 끝도 없이 변이하는 선. 다시 말해 연속적 변주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선이야말로 진정 추상적인 선으로써 매끈한 공간을 그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표현적인 선이죠. 기하학적인 어떤 점선면으로부터 벗어나서 매끈한 공간으로 가는 무정형, 무규정의 선들. 어떠한 정해진 형태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부단히 그 사이를 비

껴가는 거죠. 한 마디로 유목적인 것. 매끈한 공간. 처음부터 설명한 개념이 표현적 추상에 다 들어가는 거죠. 다 같은 계열이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표현적인 선이 어떻게 고딕예술과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거는 기계론적, 증식적이며 고정된 방향을 갖지 않는 반복역량과 유기적, 부가적이며 방향과 중심을 가진 대칭성의 힘을 대립시킨다. 그리고 이것을 고딕적 장식과 그리스, 또는 고전적 장식 간의 근본적인 차이로 본다]

이제 얘기가 더 풀이되는 거죠. 결국, 고딕적이라는 것의 특징이 기계론적, 증식적이라는 거죠. 이 고딕적 선의 특징을 보링거는 기계론적, 증식적, 반복적, 빗나가는 선이라고 하죠. 이 건 점과 점 사이에 갇혀서 하나의 기하학적인 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점과 점 사이를 비껴가면서 형태를 만들지 않는 거죠.

기계론적이라는 건 단자적, 모나드적이라는 거죠. 하나하나의 독립된 개체죠. 유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즘적인 거죠.

구상적인 선은, 보링거가 유기적이고 부가적이고 방향과 중심이 있고 대칭적이고 규칙적인 거죠. 결국 구상적인 선은 수목형. 하나의 중심 뿌리에서 잔뿌리들이 빠져나가는. 중심이 있고 방향이 중심으로 연결돼 있죠. 이것 자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겁니다. 이 뿌리들은 굉장히 대칭적이죠. 여기서 부가되는 잔뿌리들도 다 중심뿌리를 향합니다. 커다란 하나의 유기체예요. 규정적이고 규칙적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탈중심화돼있죠. 기계론적이고 단자적인 건 바로 리즘이죠. 구상적인 게 수목형이고요. 증식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심으로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규칙적이고 대칭적으로 형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불어나간다는 거죠. 하나의 기계가 접속-배치가 반복적인 게 리즘의 특징이었죠.

결국 들뢰즈/가타리가 표현적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유목적, 매끈한 공간이고, 구상적인 건 홈 패인 공간, 정주적인 것이 연결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로 들어가면, <한정되지 않은 역량으로서의 반복과 제한으로서의 대칭성과 대립인 것이다. 실제로 직선적 체계는 대칭성을 통해서 반복을 제한하며 그리하여 무한한 진전을 막고 굴절된 또는 별 모양 형상의 경우에서처럼 중심점과 방사선들에 의한 유기적 지배를 유지한다.>

구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대칭적인 것들이 계속되는 추상에서의 무한한 증식, 반복을 제한하면서 선들은 점 사이에 갇혀요. 대칭성이라는 건 중심이 있고,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게 돼요. 방사선과 같은. 사각형도 되고 오각형도 되고 육각형도 되고 원도 되면서. 즉 무제한으로 뻗어나가는 걸 제한하는 거죠 대칭성이라는 건. 고전 예술의 대표적인 특징이 대칭성이예요. 비례같은. 나중에 고딕 건축과 르네상스 건축을 비교할텐데, 르네상스 건축이 고전 건축의 부활이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건축 양식을 이어받는데요, 대칭적인 평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딕은 장방형으로 길어지면서 무한한 건축이 반복되거든요. 장식이나 구조의 면에서. 그런 나중에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증식시켜 무한한 운동을 계속하는 기계적인 힘인 반복역량은 빗나감, 탈중심화 또는 적어도 주변적 운동을 통해 실행되는 자유로운 행동의 고유함이다] 이게 고딕적 선, 표현적 추상을 말하는 거죠. 대칭이나 규칙, 방향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탈중심화되고 기계적인 힘들은 부단히 벗어나고 빗나가죠. 설사 운동이 있더라도 중심적인 운동이 아니라 주변적 운동을 통해 표현됩니다.

▲표현의 질료적 특질

[이 선은 점들의 공명이나 선들의 집합접속에 기초한 안정된 대칭적 형식을 구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선은 이 선과 더불어 이동하며 효과를 조금씩 증가시켜나가는 표현의 질료적 특질들을 가진다]

여기에서 또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표현적이라는 것은 질료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표현적 추상과 기하학적 추상의 다른 점의 단서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데. 표현적 추상은 한마디로 질료적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벽돌이 있어요. 벽돌이 구성하는 것으로 나눠보면, 벽돌이라는 형(形, form)이 있겠죠. 그리고 진흙, 이건 질료에 해당하겠죠. 벽돌이라는 형은 질료를 빼냈을 때 벽돌이 갖는 고유한 형상이 되죠. 플라톤으로 치면 이데아가 되는 거죠.

벽돌이 존재하려면 형상과 질료가 모두 필요하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죠. 그러나 들뢰즈/가타리는 질료 쪽에 우위를 두죠. 형상은 단지 질료들이 어떻게 접속해서 배치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한 마디로 기계랑 비슷하죠. 무규정적인. 진흙 자체는 주무르는 데로 형상이 되는 거지 규정된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료들이 접속을 통해 배치를 이루어가며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진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진료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게 바로 형상이죠. 진료적인 특징이 바로 ‘표현주의’예요. 형상 자체는 기하학적이잖아요. 표현적 추상은 진료에 해당합니다. 어떤 표현적 추상의 무규정, 무정형 진료의 배치에 따라 만들어지는 무한한 다양체들이 모두 표현적 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상들, 기하학적 추상, 어떤 불변의 것을 상징하는 게 기하학적 추상이죠. 아까 말씀드린 표현이 질료적 특질의 가지는 게 바로 이 뜻인 거예요. 한 마디로 이데아란 결국, 질료들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공통적이고 보편적이며 통일된 형식에 기반한 게 아니라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죠.

◆2교시 : 기관 없는 몸체의 리즘적 특징

▲고딕적 선

그 다음을 보면, [이처럼 고딕적 선은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는 국지적 통합으로 존재하며 접속과 방향 변화를 무한대로 연속시키면서 매끈한 공간을 구성하는 유목적 선이라 할 수 있다] 이것도 계속 나왔던 문장이네요. 여기도 적용되는 이론이죠. 매끈한 공간 혹은 유목적 공간이죠.

[그리고 고딕적 선은 형식이 아닌 표현의 역량을 가진다]이 말도 같은 얘기에요. 기하학적 형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역량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들뢰즈/가타리가 표현주의 미술에 대해서도 얼마나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도 감탄하면서 읽었던 부분이에요. 미술이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정확히 개념적으로 설명해내는가.

그 다음 보시면, [보링거의 말대로 **고딕적 선은 ‘형식으로서의 대칭성’이 아닌 ‘역량으로서의 반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은 기계론적이며 자유로운 행동의 선이자 소용돌이적이라고 말하는 유목적 선으로 비유기적이지만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비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기적이라는 건 이미 고정적이고 정적인 거죠. 어떤 공통된 형식으로서의 기하학적 형식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끊임없이 변하고 생성하죠. 그래서 유목적 선을,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 비록 비유기적이지만 딱 규정돼 있지 않고 조직화돼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더 생생하고 더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자체는 고정된 중심을 가지고 있고 중심으로 귀착하고 모든 자연물은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된다는 것. 다 같은 얘기죠. 그것 자체는 생명과는 위배된다는 거죠. 정적이고 고정적인 면이. [이는 기하학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 모두와 구별된다] 이게 무슨 말이나면, 이 표현적이고 유목적이고 고딕적인 선은, 기하학적 선과도 구별되면서 유기적인 결국은 기하학적인 것에 환원된 통일적 형식이었죠. 유기적인 것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통일된 형식으로서의 기하학적인 틀이 있죠. 둘 다 구별된다는 거죠.

기하학적인 추상은 유기적인 것과 관련된다고 본 거죠. 연속으로 보고, 진정한 추상은 표현적 추상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기관 없는 몸체

[이는 기하학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 모두와 구분된다.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이 유기적이고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와 반대로 유기체란 삶의 전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컨대 비유기적이며 강렬한 삶, 배아 상태라는 건 잠재된 생명이에요. 곧 드러날 생명. 이미 조직화되고 유기적인 것보다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기관은 강력한 삶,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생명력 있는 몸체] 이게 뭘 뜻하느냐 면요. 천의 고원을 읽으면, 기관 는 몸체, 탈기관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관 없는 몸체(body without organs)를 탈기관체라고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이미 기관을 갖춘 몸은 조직화되고 유기화됐죠. 하지만 이건 잠재성으로 생명이 배아 상태이죠. 이게 왜 더 생명력이 넘치냐? 저는 이걸 어디에다 비교하고 싶느냐 면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보면 'chora'라는 게 나와요. 공간, 장소라는 뜻인데, 발생을 허용하는 터 그리고 생성과 소멸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장소. 한 마디로 자궁에 비유할 수 있죠. 여성, 어머니의 자궁.

그 자체로는 비어 있지만, 기관 없는 몸체지만 무한한 생성의 잠재성을 그 안에 갖는 거죠. 그건 유기적인 것보다 훨씬 무한한 생명력인 거죠. 단순히 비어 있음 공이 아닌, 생명이 잠재된 무궁무진한 생명의 기관이라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한 마디로 표현적인 것과 다 통하는 말이에요. 비유기적인 것, 무규정, 무정형의 공간, 그러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것.

기관 없는 몸체도 이쪽 계열로 생각할 수 있죠. 리즘의 한 성격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탈기관체, 기관 없는 몸체라고 하면 표현적인 것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들뢰즈/가타리가 기관 없는 몸체를 제시합니다. **[기관 없는 강력한 삶,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생명력 있는 몸체]**

아까 위에서 나온 문장이죠. [비유기적이지만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비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 같은 얘기예요. 기관 없는 몸체에 대해서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난해한데, 미학 강의를 통해서 어떤 각도에서 접근했을 때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목 예술론을 읽으면서 많이 와 닿고 해석을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이 기관 없는 몸체는 그 장을 보면서 애매하고, 물론 감은 잡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여기에서처럼 해석 내려지지 않았는데, 뭔가 간질간질하던 부분이 해소되는 것을 여기서 맛보았어요.

아. 기관 없는 몸체는 표현적 선, 유목적 선과 연관 있구나. 천의 고원이라는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처음에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인드라망 얘기도 하고, 책을 다 읽어야지만 저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 천의 고원 자체가 중심이 있고 분기돼 있어서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리즘적으로 쓰인 책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도 다 만나고 각자 다른 이야기로 변주되고 또 거기에서 리즘적인 걸 찾는 게 이 책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기관 없는 신체가 유기체를 지나가는 모든 것이라는 것도, 이것도 점과 점 사이를 표현적 선이 지나간다, 그게 바로 고딕적 선이고 유목적 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미학으로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미학이나 예술을 공부하시는 부분은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파트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유목적 선이 도주적인 이동성을 통해 기하학에서 벗어나면 이와 동시에 삶은 제자리에서 소용돌이치며,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면서 유기적인 것에서 몸을 뻗다] 이게 바로 표현적 선에 대해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네요.

['추상작용'에 고유한 이러한 생명력이 바로 매끈한 공간을 그린다. 진정한 추상은 고딕적 선이며 이는 다름 아닌 스스로 매끈한 공간을 열어가는 유목적 선인 것이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죠. 진정한 추상은 고딕적이라는. 이건 제가 풀이해서 쓴 건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고딕이라는 건 탈중심적이고 끝없이 점과 점 사이를 비껴가면서 유기체를 비껴가고 형태를 만들지 않으면서 반복되고 뻗어가는 것. 이런 선이 결국 고딕 건축과 장식에서 다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들을 그림을 통해 보겠습니다.

기하학적 추상이라는 것이 결국, 입방체, 입면체를 이루면서 모든 다양한 것들에서 공통된 형식을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하나의 중심으로 귀결되는 거죠. 본질을 형상에 두는 거죠. 형상 자체가 수목형을 말하거든요. 기하학적 추상도 수목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현실세계를 재현한다고 해도 유기적인 구상 계열이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중심이 같다는 거예요. 수목형이고. 이게 핵심이고 천의 고원에서 말하는 골자예요. 첫 시간에도 나오고 둘째 시간에도 나왔지만, 현대 추상 예술까지 가면서 계속 이 계열이 나오니까 이해를 해두시면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고딕 예술, 특히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빔프로젝트로 보겠습니다. 르네상스 건축과 르네상스 장식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계속 떠올리실 거예요. 특히 고딕의 건축, 장식을 저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목하는 것을 직접 모녀서 증명해 보이고 관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론적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